

#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유명무실'

### 두세훈 도의원, 교육학예행정분야 현안 질의서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타 직원 업무과중 우려된다면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활용 대체인력 확보해야"



전북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은(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382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학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행정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 유명무실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지적하며,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2021년 5월 기준 총 39명의 지방공무원들이 개인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고 있고 서울 시 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총 32명의 공무원들이 육아나 간병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일하고 있다.

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 피차못할 사정 등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통한 환경 유해성 등 검토"

### 나기학 도의원, 민원 제기중인 '철강슬래그 배출사업장' 찾아 현장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1선거구)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도로공사 매립 사업의 슬래그 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철강슬래그 배출사업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나기학 의원은 "새만금의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북도민의 뜨거운 여망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인 만큼 조급한 논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단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보다 나은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분석 등을 통한 환경 유해성 및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진입도로 조성에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는 제강 슬래그 일명 '광재'는 철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며, 환경부는 재활용 목표율을 95%로 설정한 친환경 골재로 인정하고 있다.

## 김기영 도의원 "도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적절한 운영방안 찾아야"

김기영 전북도 의원이 최근 제 38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제품명: 스피드게이트)의 적절한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영 의원은 "일부적으로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가 그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는지는 의문이다"며 "예비비는 본 예산 추경 등과 달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도의회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대중 도의원, 도내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이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도내 소방기관에서의 급식환경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끈다.



김대중 의원은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에 시달리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효천교 신설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전주 효천지구와 삼천동을 잇는 효천교 교량 건설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 도의회 상임위 현장활동

## 농산경위 "농가 소득 향상 위해 도울 것"

### 진안 용담승마클럽 마이산김치공장 방문 "승마클럽, 지역 말 산업 저변 확대에 큰 기여 마이산김치공장, 현재 위기 극복의 길 걸어"



전북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진안군 소재 '부귀농협 마이산김치공장'을 방문,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5일 진안군 소재 용담승마클럽과 '부귀농협 마이산김치공장'을 방문,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철수 의원은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무조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의 규정을 무시한 것이고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간강과 육아보육 등을 위해 밤에서 지방공무원에게 허용한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전북교육청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 극복 및 지역 상생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농가가 동반 성장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 교육위 "코로나19 이후 접근성 향상 위해 화상 연수 확대해 달라"

### 전북교육연수원 찾아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5일 제382회 정례회 현지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연수원'과 '전북과학교등학교'를 방문해 향후 화상 연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이 반영된 시설 개선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15일 진행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의정활동.

김희수 의원은 "새만금의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북도민의 뜨거운 여망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인 만큼 조급한 논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단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보다 나은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분석 등을 통한 환경 유해성 및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과학교의 시설 환경 개선과 본관동 신축 현장에서는 "노후화된 생활관 시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해질 바란다"며 "개선이 계획된 곳들의 시공이 부실하지 않고,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행자위 "급변하는 미래환경 변화 대응 전문 인재 키워야"

### 전북도인재개발원 찾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5일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을 방문해 비대면 화상교육 시연 등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재개발원 시설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을 방문해 비대면 화상교육 시연 등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재개발원 시설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 성경찬 도의원, 농촌 일손 도와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의 지난 13일 북부 수확철을 맞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주당 고창군연락사무소장 등 8명이 뜻을 모아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